

본질 V.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1. 생명력

[요한복음 12:24-25]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25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을 보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한다. 제시 펜 루이스는 '십자가의 도'에서 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5절에 언급된 '생명'이란 두 단어는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다. 처음에 나오는 생명은 낮은 차원에서의 생명, 즉 혼적인 의미의 생명이다. 그 다음 생명은 (영생) 영적인 생명 곧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생명을 의미한다."*

왜 성경은 '생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연적인 생명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도 주지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수많은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대한 승리는 믿지만, 여전히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간다. 다시말하면 '혼'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다. 성경은 혼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실제로 성도가 어떤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에 기록된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밀알의 생명력은 밀알 자체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다. 밀알의 생명력은 밀알속에 있다. 그것의 생명력은 밀알이 바깥 세상과 분리되어 땅 속 깊숙이 파묻힌다. 밀알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대신 작은생명의 싹이 돋아난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 싹은 땅을 뚫고나와 태양빛을 받으므로 결국 삼십, 육십, 백 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이삭으로 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진짜 생명력은 보여지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진짜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 풍성한 삶을 보장한다. 예수믿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생명력으로 살아가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열매는 기쁨이다. 보람이다. 허무함이 없다. 충만함이다. 또 열매는 수고한 노력의 보상이며 '의미'이다 (농부에게 열매란 열매 이상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 육의 사람 /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혼적인 사람은 항상 환경을 비롯한 모든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배 받는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변화가 심한 불안정한 외부 세계를 의존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위에 존재한다.

십자가에서 육의 생명력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나는 육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 평강과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면의 속사람에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이 죽고 그로인해 온전하고, 영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3. 감정의 영역

특히 감정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과 정신의 질병의 특징이 ‘감정’이다. 특별히 심한 우울감, 낙담, 좌절감, 수치심, 불안감 등이 상승한다.

[누가복음 21:34-35]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뿔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Be careful, or 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 with dissipation, drunkenness and the anxieties of life, and that day will close on you unexpectedly like a trap.)

35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예전 유럽 코스테를 갔을 때 한 정신과 의사로부터 들은 현대인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강의가 충격적이었다. 그 우울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을 바라볼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과학으로부터 근거한 지식과 지성 그리고 합리적 이성에 대한 인간의 신뢰와 믿음은 거의 ‘맹신’에 가깝다. 증명된 것만 믿으려 하고, 증명된 것만 받아 들인다.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믿음이 된다. 그 맹신의 믿음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려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성과 지성을 감정위에 두며 그 속에서 감정의 영역까지 다스리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울증과 같은 감정의 묵임이 그 어떤 때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어서 삶을 파괴한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치있고 풍성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your hearts will be weighed down)가 바로 우울증이다.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성경은 이와같은 상태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왜 우울증이 무서운가? 우울증은 현재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이다. 본인에게 닥치는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말한다.

외부적인 상황에 완전히 압도된 본인이 얼마나 싫겠는가?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그러니 결국 ‘생명’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의미를 잃게 된다. 살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남의 행복을 보면 더 힘들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남의 행복을 보고 ‘아 나도 힘을 내야지, 행복은 있어, 저들도 힘들 때가 있었을 거야, 폭풍 후에 맑은 날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 날이 있을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뒤틀려진 상태이다. 내가 처한 상황속에서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는 것이다. 산으로 가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종교를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노력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음을 말한다. 즉, 내가 어떤 생명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다. 세상의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회피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내면의 문제가 보여지는 상황이 없어진다고 해결되겠는가? 안 듣고, 안 보고, 영향을 받지않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이 올 것이다. 그러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과 전혀 어울려 살지 못한다. 환경에 완전히 의지된 상태이다 (현실 부적응자).

종교에 뿌리를 둔 행위로 인한 다스림 또한 문제이다. 그 행위를 못하는 신체가 불편한 장애우들은 종교가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단 말인가? 이런 편파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겠는가? 그러므로 ‘행위’에 기반한 행복과 안정감은 일종의 종독이다.

4. 엘리야의 우울감

[열왕기상 19:2-4]

2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3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 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렘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성경에 소개된 어떤 인물보다 강력하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850:1의 바알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담대하다. 이런 엘리야의 승전의 소식을 듣고, 열왕기상 19: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는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자신의 신에게 맹세하기 까지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서 죽기를 간청했다. 소망도 없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비관한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이 모습을 보라. 완전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한다. 극심한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 도망자라는 수치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엘리야 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정에 휘말린다. 하물며 엘리야 보다 못한 우리는 어떻게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엘리야의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3절에 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 고 나와있다. 영적인 생명력은 '자신의 생명'이 죽을 때 주어진다. 엘리야의 속사람 안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육신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반응한다.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미약한 생명력이다.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속사람이 완전히 연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에베소서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렇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정신도, 감정도, 건강해지는 것이다. 건강한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죽음의 파도와 폭풍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의 능력이다.

5. 진리는 감정에 묶이지 않고 감정을 다스린다.

내가 진리위에 서있다는 것은 '감정'에 묶이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이미 허락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아는 것이다.

본질은 환경에 이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주도한다. 이것이 본질의 핵심이며, 진리의 속성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으로 살지 말라. 진리로 감정을 다스리라. 그것은 엘리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작은 손길을 내 삶에서 느끼는 것이다.

[열왕기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아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지라

내 감정이 반응하는 불과 지진과 같은 강력함이 아니다. 이러한 강력함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자상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란함이 아니다. 생명력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같으나, 땅 속에서 진짜 생명력으로 잠잠히 땅을 뚫어내고 만다. 요란하지 않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은 내 감정과 지성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십자가위에서 죽은 예수님의 생명은 절망과 허무함에 사로잡혔던 땅 위와 달리, 너무나 조용하고 잠잠했던 땅 속 무덤에서 생명력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감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진리 위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찬, 영적인 삶의 풍요함에 안에 거하라.